

세계유산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조성 양상

소현수* · 박현숙**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스튜디오 이드 소장

Aspects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Entrance Space of the World Heritag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So, Hyun-Su* · Park, Hyun-Sook**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incipal, Studio id Landscape Architects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reviewing Aspects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Entrance Space of the World Heritag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equipped with parking lots, ticket offices, toilets, exhibition halls, information boards, and rest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visitor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duced area of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as unable to fully accommodate the ritual movement line, and as a result, the location of the entrance space in the current royal tomb was decided to accommodate minimal convenience functions. In the meantime, the entrance space of the royal tombs has been relocated or renovated in order to achieve its integrity as a World Heritage Site, rational arrangement of movement lines and spatial utility.

Second, the size of the entrance space ranges from 1,000 square meters in Jeongneung in Seoul to 16,000 square meters in Hongyuneung in Namyangju, and the number of annual users varies greatly from 12,000 in Onneung in Yangju to 410,000 in Seonjeongneung in Seoul.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16 royal tombs, the entrance space should be provided at an appropriate scale, reflecting the surrounding land use and accessibility that affect the influx of users, the size of the site, and the king's awareness and preferences.

Third, the location of the parking lot,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outer courtyard and an internal courtyard bordering the ticket and check offices, and the loc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Museum made it possible to know the aspects of entrance space of the Joseon Royal Tombs, where the spatial configuration is determined

Fourth, according to the royal tombs, it was found that the entrance space should have essential parking, access control, information, and convenience functions, and that support, exhibition, passage, and recess functions should be optional. At this time, the management office 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enter are in charge of support and exhibition functions. The function of passage can be a strategy that provides a sense of entry and the function of recess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only four royal tombs requires an appropriate location and landscape access.

Key words: Area of Tombs, Convenience Facilities, Historical and Cultural Museum, Landscape Image, Transition Space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방문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매·수표소, 화장실, 전시관, 안내판, 휴게시설 등이 배치된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조성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능역(陵域)이 좁아져 기존 제례동선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왕릉에서 입구공간의 입지는 당시 여건에

† **Corresponding Author** : Park, Hyun-Sook, Studio id Landscape Architects, 83, Nonhyeon, Seocho-gu, Seoul, South Korea, Tel.: +82-2-577-7383, E-mail : studioid03@naver.com

서 최소한의 편의 기능을 수용하도록 결정되었다. 다수의 왕릉 입구공간은 그동안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을 갖추고, 동선의 합리적 배치와 공간적 효율을 도모하며 위치가 이동되거나 정비되었다.

둘째, 입구공간의 규모는 서울 정릉 1,000㎡부터 남양주 홍릉과 유릉 16,000㎡에 이르며, 연간이용자수는 양주 온릉 1.2만명부터 서울 선릉과 정릉 41만명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왕릉 16개소의 여건을 고찰하여 입구공간은 이용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토지이용과 접근성, 능력의 규모, 피장자(被葬者)의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조선왕릉 입구공간에서 주차장의 위치, 매·수표소를 경계로 하는 외부 마당과 내부 마당의 유무와 역사문화관의 위치로 결정되는 공간구성 양상을 고찰하였다.

넷째, 왕릉마다 입구공간에 필수적인 주차, 통제, 안내, 편의 기능과 지원, 전시, 통로, 휴게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때 관리사무소는 지원 기능, 역사문화관은 전시 기능을 담당한다. 통로는 진입감을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왕릉 4개소에만 도입된 휴게공간은 적절한 위치 선정과 경관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차장의 이격 배치와 친화적 포장디자인, 전이공간의 식생경관, 매·수표소 내부 역사문화관 주변 오픈스페이스, 이질적 안내판들의 영역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경관 이미지, 능역(陵域), 역사문화관, 전이공간, 편의시설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왕릉은 500여 년 동안 지속된 단일 왕조의 능원(陵園)으로서 역사적,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계기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왕릉 능제(陵制) 복원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던 재실을 원형 보존하고, 관리사무소와 역사문화관을 신축하여 왕릉의 품격을 제고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왕릉의 활용을 모색하면서 오랜 시간 잘 보존된 역사경관립을 기반으로 하여 능역(陵域) 내 관람로 확대와 숲길 개방 등 방문자의 경관 체험 기회를 늘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조선왕릉의 입구에 관심을 가진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능원과 달리 현대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된 공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사정으로 능역이 축소되고, 도시화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주변 토지이용이 바뀐 왕릉별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입구공간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방문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주차장, 매표소와 수표소, 화장실, 문화재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배치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현대적 시설물의 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향하고 있다[1].

조선왕릉 입구공간은 그동안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려는 목표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어떠한 목적 공간의 입구는 출입 통제나 이동의 방향성과 연속성 제공이라는 기능

외에도 방문자가 체험하게 될 공간 전체의 선형적 이미지를 구체화하고[2], 목적 공간에 대한 인상을 암시하는 공간이다[3].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현황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조성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연구의 성과가 입구공간이 조선왕릉의 정체성을 전달하며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대상의 조선왕릉

본 연구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에서 수도권 외곽에 소재한 영월 장릉,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그리고 편의시설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서울 강릉을 제외하여 구리 동구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이하 홍유릉), 남양주 광릉, 남양주 사릉, 서울 태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 서울 선릉과 정릉(이하 선정릉), 서울 현릉과 인릉(이하 현인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 파주 삼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 화성 용릉과 건릉(이하 용건릉) 입구공간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선왕릉 입구공간 규정

이창환과 김용기(1999)는 조선왕릉 상설(象設)제도를 기반으로 한 왕릉의 공간구성을 진입공간, 제향공간, 성역(능침)공간으로 제시하고, 금천교(禁川橋)부터 홍살문까지를 진입공간이라고 규정하였다[4]. 소현수와 이종근(2018)은 역사경관립 정비를 다루면서 방문자들이 조선왕릉에 왔다고 인식하게 되는 매표소, 역사문화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배치되고, 관람로를 따라 안쪽으로 진입하면 재실과 연지가 위치하는 영역까

지 진입공간을 확장하여 정의한 바 있다[5]. 또한 장기적으로 조선왕릉 제례동선 복원이 필요한 일부 조선왕릉의 경우 문화재지정구역 밖에 있는 외홍살문과 외금천교까지 능력으로 이해하는데, 이때의 진입공간은 금천교, 외금천교, 외연지, 재실 등의 능제 시설물과 제례동선, 관리동선 등 능제 및 관리환경까지 확장된 바 있다[6]. 본 연구는 왕릉 방문에 필요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편의지원 공간을 기존 진입공간과 차별화된 명칭인 조선왕릉의 ‘입구공간’이라고 규정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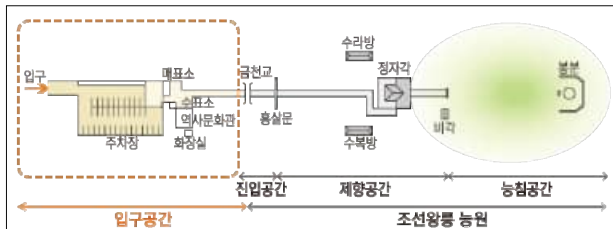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왕릉의 입구공간 모식도

3) 연구의 내용

먼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이하 ‘2015년 중장기계획’』[7]와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 계획 연구 : 이하 ‘2021년 중장기계획’』[6]을 중심으로 입구공간의 입지 선정과 정비 이력 및 변화 추세를 파악한 후 입구공간 고찰의 필요성과 의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하여 16개 왕릉의 현황을 토대로 입구공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현대적 시설 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펜스, 담장, 경계석 등 물리적 선형을 따른 영역으로 한정하였으며, 화장실, 역사문화관 등이 주차장과 매·수표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한 왕릉별 입구공간 배치도를 작성하고(그림 3), AutoCAD 프로그램으로 개략적인 면적을 확정하였다(표 1).

첫 번째 분석으로, 왕릉마다 입구공간의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고 방문자 접근성에 관련된 일대의 용도지구 등 주변 토지이용과 2022년 연간이용자수 통계 자료[8]로 입구공간의 상대적 규모와 관련된 특성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입구공간 16개소에서 반복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를 읽어 입구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구성 양상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설치된 시설의 종류로 입구공간이 담당하는 8가지 기능을 파악하였다(표 4). 이를 단순화시킨 왕릉별 기능 분포 개념도를 작성하고(그림 4), 입구공간에 수용된 필수적이거나 선택적 기능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표 5). 마지막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나아가 방문자가 처음 마주하는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가 제공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왕

릉별 입구공간의 대표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제시하고(그림 5), 여기서 나타나는 주차장과 녹지, 안내시설의 배치로 인한 시각적 문제를 도출한 후 경관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조선왕릉의 개요

번호	조선왕릉	소재지	입구 공간 면적(㎡)	연간 이용자수(명)
1	구리 동구릉	구리시	8,000	17만
2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남양주시	16,000	9.7만
3	남양주 사릉	남양주시	1,500	1.5만
4	남양주 광릉	남양주시	9,000	8만
5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시	3,000	41만
6	서울 현릉과 인릉	서울시	3,000	4.8만
7	서울 태릉	서울시	7,500	7.8만
8	서울 정릉	서울시	1,000	22만
9	서울 의릉	서울시	4,500	9.3만
10	고양 서오릉	고양시	7,500	38만
11	고양 서삼릉	고양시	3,000	4.7만
12	양주 온릉	양주시	2,000	1.2만
13	파주 삼릉	파주시	12,000	5.4만
14	파주 장릉	파주시	2,000	2.6만
15	김포 장릉	김포시	10,000	27만
16	화성 용릉과 건릉	화성시	9,500	39만

II. 결과 및 고찰

1. 입구공간의 입지와 정비 이력

1) 입구공간의 입지 선정

영월 장릉을 제외하면 조선시대의 능역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왕릉은 없다[9].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왕릉 영역의 필지들이 국가기관에 이양되거나 사유지로 바뀐 결과, 현재 조선왕릉은 역사문화환경으로 부적합한 시설과 충돌하고 있다. 서울 정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 양주 온릉 능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서울 현인릉, 서울 태강릉, 서울 의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에는 국가기관들이 자리잡았다. 특히 서삼릉은 196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농협대학, 마사회, 골프장 등에 토지가 매각되어 능역이 여러 개로 분할됨으로써 입구공간이 전체 능역을 수용하지 못하는 위치에 마련되었다.

서울 도심 도로변에 입지한 서울 선정릉 입구공간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매·수표소, 안내시설, 휴게시설이 설치된 마당으로 구성되었다(그림 2-e). 주택가에 둘러싸인 서울 정릉도 8대의 주차공간과 매·수표소가 있는 최소한의 입구공간을 확

보하였다(그림 2-h). 서울 현인릉의 인릉 재실은 능역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주차장이 분리배치되었다(그림 2-f). 서울 의릉의 입구공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진입도로에 면한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 역사문화관 영역이 분리되었다(그림 2-i). 서울 태릉과 강릉은 태릉선수촌, 사격장 등이 배치되면서 제례동선이 단절되고, 입구공간이 양쪽으로 분리되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능역이 축소된 구리 동구릉¹⁾, 남양주 홍유릉²⁾, 파주 삼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 모두 외홍살문, 외금천교, 외연지 등이 유실됨으로써 왕릉 조성 당시의 제례동선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능역이 크게 줄어든 여건에서 조선왕릉의 입구공간은 당시 왕릉별 상황에 맞추어 위치를 정하고, 최소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 결과이다.

2) 입구공간의 정비 이력

문화재청은 입구공간 정비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 『2015년 중장기계획』에서 제안된 남양주 사릉, 남양주 홍유릉, 서울 선정릉, 고양 서오릉, 파주 삼릉의 입구공간이 정비되었다. 서울 정릉, 서울 의릉, 서울 현인릉, 고양 서삼릉, 파주 장릉의 입구공간도 변경되었거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입구공간의 위치를 옮겨 새로 조성한 네 개 왕릉의 정비 목적과 결과를 고찰하였다.

파주 삼릉은 과거에 능역을 양분하는 봉일천리와 장곡리 마을을 잇는 관통도로 옆 재실 가까이에 입구가 있었으나, 능제 복원 사업으로 약 200m 밖인 현재 위치로 이동하였다(그림 3-a). 또한 서울 선정릉은 오른쪽 부지에 강남구의 지하 저류조 시설과 연동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새로운 입구공간을 조성하였다(그림 3-b). 결과적으로 역사문화관이 입구공간과 멀



그림 2.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배치도

어지게 되었다³⁾.

남양주 사릉은 2014년 관람 가능하도록 개방하면서 도로변에 있던 입구 부지에 선형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왼편 안쪽으로 입구공간을 옮겼다(그림 3-c). 이로써 방문자가 수표소를 통과하면 위요된 소나무숲을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으나 능원에 이르는 관람동선이 짧아지고, 재실이 동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⁴⁾. 고양 서오릉은 서오릉로와 국군기무사령부 종합교육장을 있는 도로에 의해 오른쪽 명릉(明陵)과 왼쪽 영역이 나뉘어지고, 도로 양 옆에 매표소와 주차장이 배치됨으로써 관람동선이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2015년 5개 봉분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도록 명릉 우측으로 입구공간을 옮김으로써 족본(族墳)으로 형성된 서오릉의 정체성을 전달하였다(그림 3-d). 이때, 매표소, 관리사무실, 역사문화관, 화장실을 신축함으로써 입구공간의 기능성과 경관성이 향상되었다.

3) 입구공간 고찰의 의의

살펴본 왕릉 입구공간의 정비 이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장기계획』에서 정비가 완료된 고양 서오릉과 파주 삼릉을 제외한 나머지 왕릉의 입구공간은 위치를 옮겨 새로 조성해야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제례동선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장기적 계획 방향에 해당한다⁵⁾.

이러한 배경에서 입구공간 정비는 노후시설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치로 옮겨 조성될 여지가 많으며, 비공개 상태인 다수의 원(園)·묘(墓)를 일반에 공개하게 되면 새로운 입구공간 조성 계획이 요구된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조선왕릉 입구공간이 점차 통합적이고 일체감있는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지만, 입구공간의 위치와 규모, 도입 시설로 형성되는 기능, 방문자가 체험하는 경관 이미지 등 입구공간의 적정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기능과 경관

1) 입구공간의 규모

조선왕릉 입구공간은 서울 정릉, 남양주 사릉, 양주 온릉, 파주 장릉이 다소 좁고, 남양주 홍유릉, 김포 장릉, 화성 용건릉, 남양주 광릉은 넓다(표 1). 왕릉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여건이 다르므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는 입구공간의 면적 분포를 고려하여 5,000㎡, 5,000㎡~9,000㎡, 9,000㎡ 이상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선왕릉 입구공간 주변 토지를 도심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한 용도지구 정보와 함께 2022년 연간이용자수 5만명 이하,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 10만명 이상의 세 구간으로 정리하였다. 이 정보를 토대로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2).

2022년 연간이용자수는 최근 공개된 양주 온릉 1.2만명, 남양주 사릉 1.5만명, 파주 장릉 2.6만명으로 적고, 최대 서울 선정릉 41만명, 화성 용건릉 39만명, 고양 서오릉 38만명에 이른다. 일반주거지역의 김포 장릉과 화성 용건릉은 높은 이용률을 수용하는 넓은 입구공간을 갖추고, 자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이용 빈도가 낮은 양주 온릉, 남양주 사릉, 파주 장릉의 입구공간은 상대적으로 좁다. 이들 사례에서 방문자 수와 입구공간 면적의 비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서울 선정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의 이용자가 많지만 입구공간이 협소한 것은 높은 지가로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리 동구릉과 고양 서오릉은 다수의 봉분이 있는 대규모 능역, 피장자에 대한 인지도, 일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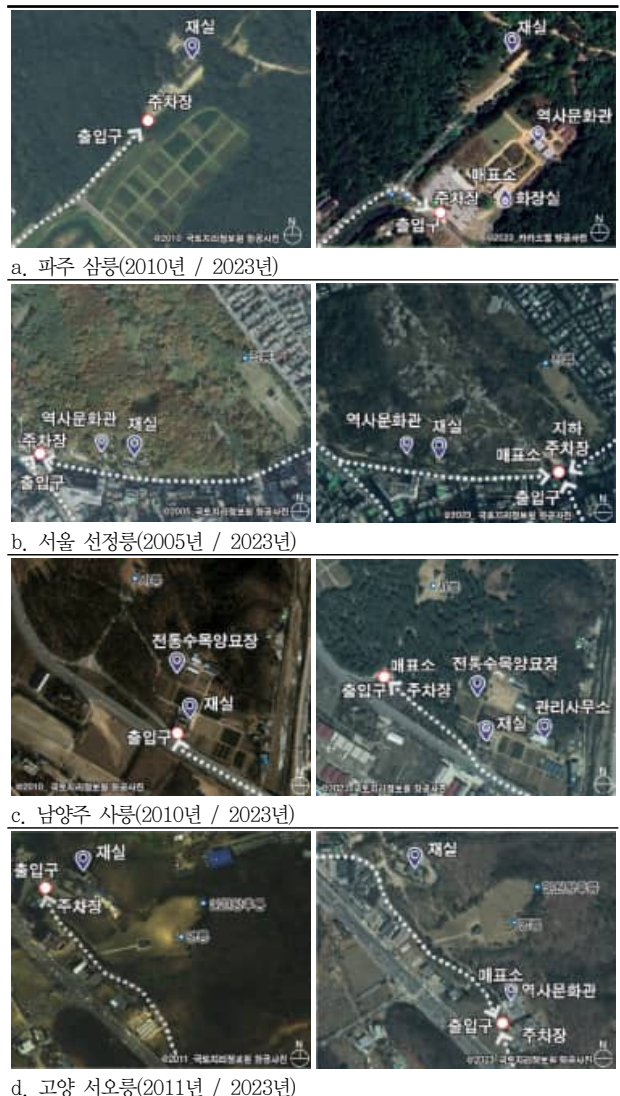


그림 3. 입구공간을 옮긴 조선왕릉의 정비 전후

거지역으로서 접근 용이성 등이 이용자가 많은 요인이라고 추정되는데, 중간 규모의 입구공간을 갖추었다. 또한 도심에서 가까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서울 태릉은 연간 이용자 수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에 해당하고 중간 규모의 입구공간을 확보하였다. 대규모 입구공간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농림지역의 남양주 광릉은 광릉수목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많고, 파주 삼릉은 향후 주변 택지개발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왕릉 주변 토지이용, 교통 접근성, 선호도 등이 이용자 유입에 관련되므로 쾌적한 서비스 제공에 적절한 입구공간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향후 왕릉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입구공간의 규모에 차별성있게 접근할 필요성을 지닌다.

표 2. 용도지구, 연간 이용자 수와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규모

구분		연간 이용자 수(2022년)		
용도지구	규모	10만명 이상	5만~10만명 이상	5만명 이하
도심지역	小	서울 선정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		
일반주거지역	大	김포 장릉 화성 용건릉	남양주 홍유릉	
	中	구리 동구릉 고양 서오릉		
	中		서울 태릉	
자연녹지지역	小			양주 온릉 남양주 사릉 서울 현인릉 고양 서삼릉
농림지역	大		남양주 광릉 파주 삼릉	
	小			파주 장릉

2) 입구공간의 구성 양상

2019년 조선왕릉을 전담하는 관리주체로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된 후 여러 개의 입구공간이 개선되었는데, 매·수표소, 통일성있는 안내시설 등 동일한 정비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배치도(그림 2)를 분석하여 입구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주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면적 비중이 높은 주차장이 매·수표소에 인접하거나 이격되는 위치, 둘째, 매·수표소 경계로 형성되는 외부 마당과 내부 마당의 유무, 셋째, 역사문화관이 있는 경우 매·수표소 외부 혹은 내부에 배치되는 점이다. 이를 왕릉별로 파악하여 공간구성의 양상을 고찰하였다(표 3).

지하주차장을 갖춘 서울 선정릉을 제외한 나머지 왕릉 중에

서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서울 의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 파주 삼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 화성 용건릉은 규모가 있는 지상 주차장을 확보하였다. 『2021년 중장기계획』에서 남양주 사릉, 서울 현인릉, 서울 정릉, 파주 장릉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남양주 사릉은 이면도로인 진입도로변에 30대 주차공간을 마련하였고, 파주 장릉도 원편 부지에 20여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많았던 고양 서오릉은 2023년 8월 유료 이용으로 전환하였다. 주차장을 매·수표소 공간과 이격시킨 8개 왕릉 중에서 서울 현인릉은 매·수표소 영역과 주차장사이에 국가정보원 주차장이 배치된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남양주 광릉⁶⁾과 고양 서삼릉은 정비를 통해서 주차구획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선왕릉 방문의 물리적, 심리적 경계로서 매·수표소 가까이 편익시설이 집중되는데, 시설이 배치된 위치에 따라서 외부 마당과 내부 마당이 형성된다. 대부분의 왕릉은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는데, 서울 선정릉, 서울 현인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에는 내부 마당이 없다. 한편 남양주 광릉과 서울 태릉은 전면의 주차장과 외부 마당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

재실을 원형 보존하도록 정비하는 여건에서 서울 태강릉(2010), 서울 선정릉(2010), 파주 삼릉(2010), 남양주 홍유릉(2010), 구리 동구릉(2008/ 2010), 남양주 광릉(2011), 화성 용건릉(2011), 남양주 사릉(2012), 고양 서오릉(2012), 김포

표 3. 조선왕릉별 입구공간의 구성 양상

왕릉 번호	주차장 위치		매·수표소 마당 유무		역사문화관 위치		
	인접	이격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없음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⑥		○	○	×			○
⑦	○		○	○		○	
⑧	○		○	○			○
⑨		○	○	○	○		
⑩		○	○	×	○		
⑪	○		○	×			○
⑫	○		○	○			○
⑬	○		○	○		○	
⑭		○	○	○			○
⑮	○		○	○		○	
⑯		○	○	○		○	

장릉(2015)의 관리사무소 및 역사문화관이 신축됨으로써 전시와 지원 기능이 확충되었다. 아직 역사문화관이 없는 왕릉이 있는데, 타 기관이 입지한 서울 현인릉과 고양 서삼릉, 주택가에 입지한 서울 정릉은 충분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최근 관람 가능하도록 공개된 양주 은릉과 파주 장릉은 향후 역사문화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문화관이 매·수표소

소 외부에 있는 남양주 홍유릉과 고양 서오릉은 관리사무소, 화장실과 복합적 기능을 담당한다. 서울 의릉은 2023년 매·수표소 중심의 입구공간과 떨어진 곳에 역사문화관이 신축되었다.

다수의 역사문화관은 매·수표소 내부 마당에 배치됨으로써 전시 기능 외에 화장실을 제공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선정릉과 남양주 사릉은 입구공간의 위치를 옮기면서 역사문화관만 남겨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3) 시설 배치로 본 입구공간의 기능

조선왕릉 입구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안내, 주차, 통로, 통제, 지원, 편의, 휴게, 전시의 8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표 4).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기능 분포 개념도(그림 4) 분석 결과, 안내, 주차, 통제, 편의는 모든 조선왕릉 입구공간에 도입된 필수적 기능이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 중에서 휴먼지털이기, 휠체어·유모차보관대, 자전거보관대는 매·수표소 인접한 위치에 개별 시설로 설치되었다.

표 4.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기능과 구성요소

기능	주요 시설
안내	사인탑, 종합 안내판, 시설 안내판, 세계유산 기념비, 사적지정 기념비, 현수막, 홍보 배너
주차	주차장, 차량통제대, 주차요금소, 전기충전기, 주차안내판
통로	보행로 포장
통제	매표소, 수표소, 펜스, 담장, 블라드
지원	관리사무소, 문화재 해설사실
편의	화장실, 음수대, 휴지통, 보안등, 휴먼지털이기, 휠체어·유모차보관대, 자전거보관대
휴게	파고라, 평의자, 등 의자, 앉음벽
전시	역사문화관(조선왕릉전시관), 야외 전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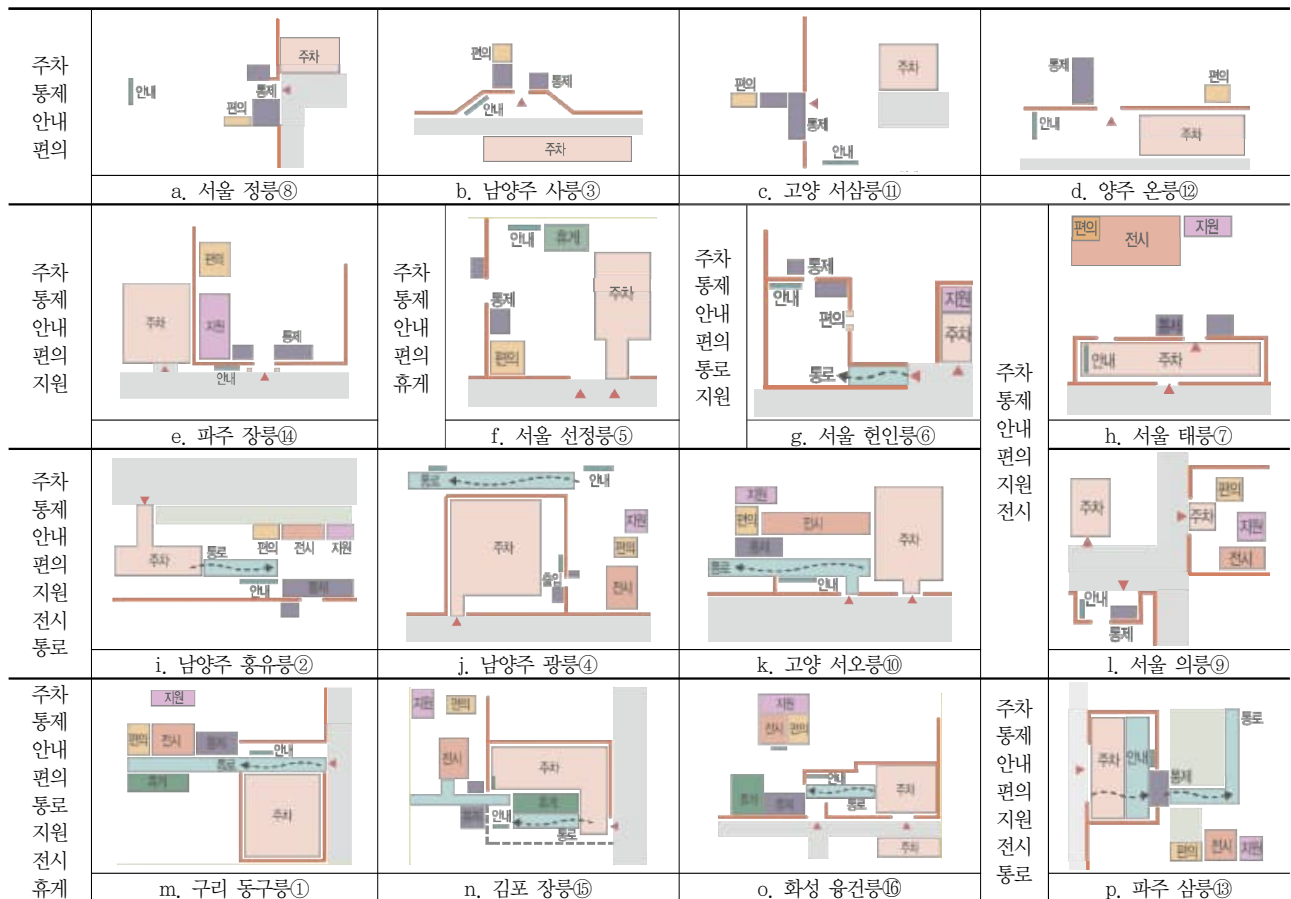


그림 4.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기능 분포 개념도

표 5. 조선왕릉별 입구공간의 기능 분포

왕릉 번호	주차	통계	안내	편의	통로	지원	전시	휴게
[1]	○	○	○	○	○	○	○	○
[2]	○	○	○	○	○	○	○	
[3]	○	○	○	○				
[4]	○	○	○	○	○	○	○	
[5]	○	○	○	○				○
[6]	○	○	○	○	○	○		
[7]	○	○	○	○		○	○	
[8]	○	○	○	○				
[9]	○	○	○	○		○	○	
[10]	○	○	○	○	○	○	○	
[11]	○	○	○	○				
[12]	○	○	○	○				
[13]	○	○	○	○	○	○	○	
[14]	○	○	○	○		○		
[15]	○	○	○	○	○	○	○	○
[16]	○	○	○	○	○	○	○	○

도입 시설은 모든 왕릉에 배치되거나 왕릉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되었다. 남양주 사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의 입구공간은 필수 기능 네 가지로만 구성되었고, 구리 동구릉, 김포 장릉, 화성 용건릉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통로, 지원, 전시, 휴게는 왕릉별 차이가 나는 기능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원 기능은 관리사무소, 전시는 역사문화관에서 담당하고, 통로와 관련하여 구리 동구릉, 남양주 홍유릉,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화성 용건릉은 주차장에서 매·수표소까지 직선형 보행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출입구를 향한 진입감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남양주 광릉은 화장실 앞에서 능역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이며(그림 4-j), 서울 현인릉은 주차장 경계를 따라 만든 보도로서(그림 4-g) 특정한 진입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⁷⁾. 이러한 측면에서 파주 삼릉에서 수표소 통과 후 역사문화관까지 이어지는 관람로는 녹지와 함께 훌륭한 전이공간이 된다(그림 4-p). 통로가 없는 사례는 남양주 사릉, 서울 선정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 파주 장릉처럼 포장면으로 구성된 마당형이거나 서울 태릉처럼 전면에 주차장이 배치된 경우이다.



그림 5.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대표 경관

마지막으로 여덟 가지 기능 중 휴게공간이 가장 적은 수의 왕릉에 도입되었는데, 구리 동구릉과 김포 장릉은 보행로 옆에 의자가 배치된 방식이고, 서울 선정릉에는 입구공간 경계부에 파고라와 평의자가 여러 군데 배치되었으며, 화성 용건릉에는 문화재 해설사실,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으로 구성된 영역에 파고라가 설치되었다. 방문자 서비스를 위한 휴게공간은 입구공간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계절감 있는 식생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4)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구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 공간의 배치가 방문자가 체험하게 되는 경관을 결정한다. 현재 조선왕릉 입구공간은 기능 중심의 접근에 충실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입구공간이 경관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제하고, 왕릉 입구공간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하여 대표 경관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5).

대다수 방문자들이 주차장에서 처음 왕릉을 접하게 되므로 앞서 고찰한 주차장의 위치는 입구의 경관성을 좌우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공간의 공공디자인 지침에 혼잡이 발생하는 주차장은 경관 저해요소가 되므로 가시되지 않는 곳에 이격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10].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매·수표소 공간과 거리를 두어 주차장을 배치한 서울 의릉, 고양 서오릉, 파주 장릉, 화성 용건릉에 비해서 다수의 왕릉이 정면에 주차장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서울 현인릉, 서울 태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



a. 입구공간에서 봉분이 노출된 서울 의릉



b. 입구공간에서 봉분이 노출된 서울 현인릉



c. 숲길로 진입하는 남양주 홍유릉



d. 매·수표소 안쪽 전이공간이 확보된 파주 삼릉



e. 한식담장으로 차폐된 서울 태릉의 입구공간



f. 내부와 단절된 화성 용건릉의 입구공간



g. 한식담장으로 차폐된 파주 삼릉(2022년)



h. 펜스 교체, 안내판을 옮겨 정비한 파주 삼릉(2023년)

그림 6.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경관성



a. 구리 동구릉의 육중한 석재 구조물 안내시설



b. 현수막, 주차장 안내판 등으로 복잡한 서울 선정릉



c. 펜스로 안내판 영역을 구획한 김포 장릉



d. 투시형 펜스로 녹지가 배경이 된 고양 서삼릉



e. 모형안내판 배치로 안내 영역을 만든 서울 선정릉



f. 안내 영역을 따로 확보한 여주 영릉

그림 7. 안내시설 배치가 중심이 된 조선왕릉 입구공간

파주 삼릉, 김포 장릉의 방문자는 건조한 인공경관을 마주하게 된다. 구리 동구릉은 주차장 경계부에 수목이 식재되었으나 수량이 적어 포장면 규모에 대응하여 경관적 기여가 크지 않다. 정면 주차장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부지 매입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가능하므로 물리적 공간 정비 시 풍성한 그늘 식재, 틈새 녹지가 포함된 투수성 포장재 등으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왕릉과 인접한 경계공간은 방문자가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조선왕릉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외부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데[6], 입구공간에서 봉분이 직접 노출되는 서울 의릉(그림 6-a)과 서울 현인릉(그림 6-b)은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조선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진입로 왼편에 넓은 녹지를 조성한 남양주 홍유릉의 입구공간은 전이공간 개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이다(그림 6-c)⁸⁾. 동일한 맥락에서 파주 삼릉(그림 6-d)의 매·수표소 안쪽 양묘장을 옮긴 곳에 역사문화관에 이르는 전이공간이 형성되었는데, 입구공간에 필요한 경관 전략을 보여준다. 서울 태릉(그림 6-e)과 화성 용건릉(그림 6-f)도 해당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진입을 막기 위한 매·수표소의 한식 담장이 내부

경관을 차폐한다. 한식 담장은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구리 동구릉, 남양주 홍유릉, 서울 정릉, 고양 서삼릉에 남겨져 있다. 올해 파주 삼릉에서 한옥형 매·수표소 옆에 설치되었던 한식 담장 일부를 투시형 펜스로 교체한 것(그림 6-g, 6-h)은 기능과 경관성을 함께 고려한 긍정적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입구공간에서 면적 영역을 차지하는 녹지는 왕릉별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서울 선정릉, 고양 서오릉, 양주 온릉은 부지 경계와 시설의 완충공간에 일부 녹지가 배치되었다. 이는 고전적이고 소극적 태도의 조경 처리 방식이다. 서울 현인릉, 남양주 사릉, 서울 정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은 입구공간 경계에서 안쪽 영역의 녹지가 보인다. 반면 서울 태릉, 화성 용건릉, 파주 삼릉은 역사문화관을 신축하면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녹지와 조화를 이룬 경관을 조성하였다.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요인으로서 필수 기능인 안내시설이 있다. 높은 기둥 형태의 사인탑, 조감도가 그려진 커다란 종합 안내판, 육중한 석재 세계유산 기념비, 석재 기둥형 사적 지정 기념비가 모든 왕릉에 배치되었다. 입구 앞쪽에서 왕릉의 존재를 알리는 사인탑 외에 나머지 안내

판들은 매·수표소 가까운 곳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이들은 조성 시기와 목적이 다른 만큼 시각적 이질감이 있는 형태로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이때 매·수표소 측면 경계부에 안내판 영역을 확보한 경우보다 정면에 일렬로 배치된 파주 장릉(그림 5-n)에서 안내시설이 입구공간의 분위기를 압도한다. 서울 의릉, 구리 동구릉(그림 7-a)처럼 매·수표소 양쪽으로 재료가 다른 안내판을 분리 배치한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현수막(그림 5-c, 5-p, 7-b, 7-e), 홍보 배너(그림 5-c, 5-f, 5-j), CCTV 시설 안내판, 지자체 문화유산 안내판,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내판, 주차장 안내판(그림 7-b) 등 다양한 형태의 안내판들이 배치되어 조선왕릉 입구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은 분산된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도록 권장한다[1]. 이와 관련하여 고양 서오릉(그림 5-j), 고양 서삼릉(그림 7-d), 김포 장릉(그림 7-c)은 입구공간 경계부에 배치하고 안내판 영역을 펜스로 구획하고, 동구릉(그림 7-a)은 경계석으로 구획하였으며, 남양주 홍유릉(그림 6-c)처럼 단차를 두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 선정릉(그림 7-e)은 마당형 입구공간 한쪽에 모형 안내판을 배치함으로써 면적인 정보 공간을 제공하며, 연구 대상지는 아니지만 여주 영릉(그림 7-f)은 바닥포장을 달리한 안내판 설치 공간을 따로 확보하였다.

III. 결론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방문자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에 조성된 왕릉의 입구공간 16개소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능력을 잃고 제례동선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왕릉에서 입구공간의 입지는 한정적 여건에서 최소한의 기능을 수용하도록 선정된 결과이다. 그간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을 갖추고, 동선의 합리적 배치와 공간적 효율을 도모하며 다수의 왕릉 입구공간이 위치를 옮기거나 정비되었다. 앞으로 능제 복원, 비공개 원·묘의 개방 등으로 새로운 입구공간 조성이 예상되므로 현재 입구공간의 기능과 경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입구공간의 규모는 서울 정릉 1,000㎡부터 남양주 홍유릉 16,000㎡에 이르며, 연간이용자수는 양주 온릉 1.2만 명부터 서울 선정릉 41만명까지 왕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16개 왕릉의 여건을 고찰하여 입구공간은 이용자 유입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변 토지이용과 접근성, 능력의 규모,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주차장의 위치, 매·수표소를 경계로 하는 외부 마당과 안마당의 유무와 역사문화관의 위치라고 도출하고 공간구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넷째, 조선왕릉의 입구공간은 필수적인 주차, 통제, 안내, 편의 기능과 지원, 전시, 통로, 휴게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관리사무소는 지원, 역사문화관은 전시 기능을 담당한다. 통로는 전이공간으로서 진입감을 제공하고, 휴게공간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식생경관을 도입함으로써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차장의 이격 배치와 친화적 포장디자인, 전이공간의 식생경관⁹⁾, 매·수표소 내부 역사문화관 주변 오픈스페이스, 이질적 안내판들의 영역화 전략을 이해하였다.

대대적인 종합정비사업 후 2020년 공개한 여주 영릉은 진보된 입구공간을 보여준다. 역사문화관의 카페가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대왕 동상과 해시계, 혼천의, 측우기 등 천문기기 발명품들을 전시한 전이공간으로 방문자에게 영릉에 대한 섹션적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목적 공간에 대한 인상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신성한 역사문화유산을 마주하는 경계에 적합한 디자인을 모색하고, 개별 왕릉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예시하면, 역대로 봉분이 피복된 건원릉이 있는 구리 동구릉의 입구공간에 역새 테마의 식생경관을 제공하고, 화성 용건릉에는 정조가 애호했던 버드나무, 석류[11] 등을 식재하는 등 역사컨텐츠 활용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모색할 수 있다.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의 형태와 위치 선정으로 만들어지는 입체적 장면들, 왕릉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적 표현 등 조선왕릉 입구공간이 성역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품격있는 경관적 매력을 전달하는데 조경의 역할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주 1) 외연지-외금천교-외홍살문을 잇는 동구릉 원형 제례동선 복원을 추진하고, 진입부 종합정비와 연계하여 관람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을 확장 이전할 필요가 있다[6]. 즉, 봄과 가을 동구릉 방문자가 많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변 도로까지 주차하는 실정인만큼 장기적으로 외연지 터부근으로 이전하고, 주차장 입구 위치로 추정되는 외홍살문도 이설 복원하고 현재 주차장은 위토(位土; 제사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복원하여야 한다[7].

주 2) 2021년 남양주시는 대로변 목화예식장을 철거한 후 홍유릉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였으나 뒤쪽 홍유릉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않았다. 현재 명당수가 복개된 상태이며, 외홍살문과 외금천교를 거쳐 외제실을 통해 진입하는 제례동선이 복원되어야 한다[7]. 향후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 확장 이전, 화장실과 주차장 등 관람 편의시설 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6].

주 3) 현재 제례동선과 관람동선이 상충하므로 새로운 입구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관리사무소와 역사문화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역사문화관은 입구 근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7].

- 주 4) 양묘장 이전 후 원지형을 복원하여 금천교-재실-제향공간으로 이어지는 제례동선이 복원되어야 한다. 재실 남쪽 부지를 매입하여 주진입부를 옮기고 역사문화관 신축, 주차장과 편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6].
- 주 5) 세계유산 조선왕릉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해당 지자체는 능제 복원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적 방안부터 화성 용인릉처럼 인접 부지에 기반시설로서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거나 남양주 홍유릉처럼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등 상생을 모색해볼 수 있다.
- 주 6) 기존 주차장은 재실 앞마당으로 정비하고, 제례동선 복원을 위하여 봉선사 방향에서 진입하는 오른쪽에 진입부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역사문화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7].
- 주 7) 능역 전면 세계유산구역 내 국정원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은 경관적으로 저해되어 능원의 보존 가치가 떨어지므로 철거가 필요하다[7].
- 주 8) 약 6m로 너무 넓은 폭원의 진입로와 원편 녹지의 식생경관이 인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디자인의 차원으로 남겨둔다.
- 주 9) 향후 고양 서삼릉의 효릉(孝陵)이 개방을 앞두고 입구공간 정비가 예상되는데, 축협이 초지가 만든 목가적 풍경이 매력적인 전이공간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 [2] 김선미(2009). 서울 5대 궁궐 진입공간의 특성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이승희(2006). 미술관 진입공간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이창환, 김용기(1999). 조선시대 능역의 공간구성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7(5): 48-56.
- [5] 소현수, 이종근(2018). 조선왕릉 역사경관립 수목 정비 계획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3): 88-99.
- [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2021).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연구.
- [7] 문화재청(2015).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8]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조선왕릉 관람객 수 현황(20221231).
- [9] 조운연(2009). 조선왕릉의 능역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문화재청(2012). 사적정비의 계획과 설계 - 궁궐, 관아.
- [11] 홍형순(2016). 정조의 화훼 애호 태도와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4): 14-25.

원 고 접 수 일: 2023년 8월 17일
 심 사 일: 2023년 9월 10일 (1차)
 : 2023년 9월 19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23년 9월 19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